

투데이칼럼

부안마실축제 대한민국 최고의 명품 대표축제로

어 화 세상 빛남네야, 북반으
러 마실가세!'를 주제로 펼
쳐지는 "2016 부안마실축제"
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다.
최연곤 문화관광과장을 비롯하여
마실 축제 TF 팀 6명의 팀원들은
축제전위원회와 5북마당(강북이마
당 자북이마당 휴북이마당 재북이
마당 풍북이 마당) 42개 프로그램을
을 선정 대한민국 명품 대표축제로
거듭내려고 온 정성을 쏟고 있다.
특히 지난해 전국 최초 소 도음
거리형 축제로 펼쳐진 마실 축제는
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
회에서 공모한 지역대표 공연예술
제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1억 원의
상금이 확보되기도 했다.
올해로 4번째를 맞는 부안마실축
제는 지난해의 오답을 해답으로 만
들어 문화관광축제로 나아가고자
축제 길러 콘텐츠의 부재 부분은
부안의 문화를 담은 "마실 춤 공연
대회", "짚신과 나막신" 등의 새로
운 프로그램을 개발 옛날 마실의
향수를 느낄 수 있는 "평상거리"를
운영된다.



이옥수

지방부 부안주재 국장

13개 읍·면과 관광객이 하나 되
는 오색찬 연(宴) 퍼레이드와 부안
맑은 물총 페스티벌, 오복기원 위도
피 뱃놀이 재현, 마실 전통문화놀
이, 얼씨구나 좋구나 대동한 마당
등 대표 프로그램은 부안만의 특색
을 살린 다양한 볼거리를 치러 진
다.
더욱이 올 마실 축제는 민선 6기
부안 군정 주요 정책의 인문학 버
전인 오북마당(강북이, 자북이, 휴
북이, 재북이, 풍북이) 중심으로
거리 퍼레이드와 "마실"과 "오복"
을 표현하는 전국 창작 무용대회,
전국관광객 유치 및 프로그램 참여
목적으로 펼쳐진다.

격려 수성당 개양합기를 소개하고
자 하는 프로그램(개양합기가 나막
신을 신고 서해바다를 걸어다녔음)
길이 2.5m의 대형 나막신 제작으로
홍보 및 관광객 포토존 구성과 축
제 장내 가족 관객과 어린이들을
위한 마실 대형 놀이터로 관광객에
게 즐거움도 선사한다.
연예인 공연 뿐만 아니라 군민 및
관광객의 문화충족을 위한 뮤지컬
갈라쇼, 마당극, 거리 공연 등 문화
공연을 확대한다.
군 700여 공무원들이 올 마실 축
제를 직접 기획·연출하고 지난해
부터 전국 각지에서 거리홍보를 진
행하는 등 마실 축제를 성공적으로

치트려고 떠나할 것 없이 모두가
한마음 한마음으로 술선수업을 보
여주고 있다
올 마실 축제는 전문공연부터 경
연대회, 체험 프로그램, 체육행사,
백일장, 패션쇼 등 분야도 다양했지
만 전국농악경연대회와 전통놀이,
물총페스티벌, 시화전, 소금·청
자·솨대·단청만들기 체험, 야시
장, 마라톤·배드민턴·승마대회
등 소재도 무궁무진하다.
다양하면서도 화려한 행사 지금
당장은 소박하더라도 주민과 관
객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할 수 있
는 축제로 주민과 관광객이 한 데
어우러져 축제의 역사와 전통을 서
서히 만들어 나가고 이를 함께 공
유해가는 프로그램은 핵심 콘텐츠
를 중심으로 펼쳐진다 전국 각지
관광객들이 기대해봐도 좋을 것
같다.
관광 인프라는 축제를 그 속에 가
두는 방식이 아닌 축제의 질적 수
준과 성장속도를 고려해가며 조화
롭게 확장해가는 방식으로 일정부
부터 전국 각지에서 거리홍보를 진
행하는 등 마실 축제를 성공적으로

독자제언

불법 주·정차 단속 강화해야

좁은 골목길 도로 끝 스톱존에 당연
하다는 뜻이 주·정차 되어있는 차량
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
습이다. 노란실선 주·정차 모두 금지,
노란점선 5분 이내 정차만 허용, 흰색
실선 주·정차 가능이라는 도로 위
주·정차에 대한 기준은 존재하고 있
다. 하지만 실패를 살펴보면 주차장소
부족과 편리함을 찾는다는 이유로 기
준을 가법게 무시해바리며 불법 주·
정차를 하는 차량들이 수무룩하다.
불법 주·정차 이대로 관용을까?
전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주·
정차 단속 건수는 18만2000건으로 하
루 평균 500여건 이상이 적발되는 것
으로 나타내지만, 여전히 이로 인한
교통대란을 겪고 있다. 이렇게 도로를
점령한 차량로 인해 각종 재난현장에
출동해야 할 소방·경찰차 등 긴급차
량의 진입로가 막혀 골든타임을 놓쳐
화재나 인명사고로까지 이어지는 큰
피해가 속출하고 있다.
또한 스톱존 내 불법 주·정차들로
인해 키 작은 어린 아이들의 시야확
보를 방해하여 사고를 유발하며, 반대

로 차안에 운전자들은 아이들의 돌발
상황에 대처하지 못하여 어린이교통
사고의 원인이 되는 등 도로교통공단
에 따르면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
사망의 62%가 불법 주·정차로 인해
발생이 되었다.
이처럼 위험천만한 불법 주·정차로
인한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
기 위하여 3, 4월 교통단속을 강화하
고 있다.
2014년부터 어린이보호구역(스쿨존)
에만 적용되던 불법 주·정차 가중처
벌 대상이 교차로, 버스정류장, 긴급
차량 주차구역, 소화전, 보도로 확대
되면서 불법 주정차 일반과태료(승용
차4만원·승합차 8만원)의 두 배인 8
만원(승합차 9만원)의 과태료가 부과
되고 있다.
이제부터는 편의를 위해 "잠깐 정차
하는 건 괜찮겠지?"라는 생각은 접어
두도록 하며,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
이용하고, 차량을 사용할 땐 주차장을
이용한다면 사고를 예방하는 성숙한
시민의식이 돋보일 것이다.
강정란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

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.

기자수첩

군산시의회 해외연수 시민 혈세 낭비 이대로 좋은가

군산시의회 의원들이 시민들의 혈세
로 외유를 떠날 예정이라는 소식이
알려지면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
고 있다.
군산시의회는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
목으로 오는 19일부터 27일까지 7박 9
일간의 일정으로 스위스, 프랑스 등지
로 연수를 앞두고 있다.
이번 해외연수의 목적은 유럽의 여
러 지역을 방문하면서 파리의 도로
구성하고 가로수 관리방법, 환경문제 시
찰, 로컬맥주 생산 산업지 등을 시찰
하고 이를 통해 근대역사문화와 접목
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관광
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군산시
에 접목시키기 위해 기획됐다.
해외연수를 떠날 인원은 총 15명으
로 시의원 11명, 사무국 직원 4명이다.
이들이 9일간 사용할 경비는 1인당
400만원으로 총 6000만원에 달하며
는 모두 시민의 혈세로 충당해야 한
다. 시의회의 지난해 미국 연수를 다
녀온 뒤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절에
서 또 다시 외유성 해외연수를 떠날
예정으로 혈세낭비라는 논란과 함께
시민들의 눈총을 받고 있다.
더욱이 일부 시의원들은 해외연수



문정곤

지방부 군산주재

때마다 대응하는 의회사무국 직원들
에게 가방을 들게 하는 등 일명 '갑
질 행사'를 하는 것으로 알려져 더욱
비난을 받고 있다.
이처럼 시민의 혈세로 누릴 거 다 누
리면서 관광이나 다니는 시의원들의
행태에 대해 시민들은 과연 어떻게
이해할 것인지가 의문이다.
외유성 해외출장이 어제 오늘의 문
제는 아니지만 선진문화 배우고 벤치마
킹을 통해 좋은 제도나 사업성을 군산시
행정에 도입하고 제도를 개혁하기 위한
올바른 해외연수는 권장해야 한다.
그러나 잦은 해외견학이 지방자치
예산낭비이고 또 지자체 발전에 저해
요인이 된다면 공무원이나 의원들의
외유성 출장을 면밀히 검토해 시민의
혈세낭비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.

사설

도내 자전거 교통사고 심각하다

자전거 교통사고가 심각하다. 교
통사고라면 차량에 의한 사고만
생각하기가 쉬운데 뜻밖이다. 그
리고 자전거에 의한 교통사고라
면 충돌로 인한 가벼운 부상 정도
를 생각하기 쉽상이다. 그런데 그
게 아니다. 자전거 교통사고 때문
에 사망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
다. 그러나 증상자나 부상자는 더
말할 것이 없다.
전북 지역에서 자전거 교통사고
가 심각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
는 사실이다. 전북경찰청의 보고
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
다.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5
년간 3,164건의 사고가 발생했는
데 사망자가 12명에 이르렀다.
교통사고 건수에 대해서는 그
랬으려니 싶기는 하다. 그래도 사
망자가 그처럼 많은 것에 대해서
는 이해하기가 어렵다. 어디를 어
떻게 다치게 했기에 사망자가 그
처럼 많은 것인지 도대체 납득할
수가 없다.
전북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자
전거 숫자는 그리 많지 않다. 등

록제가 실시되고 있지 않기에 그
정확한 숫자는 모른다. 해도 전혀
집적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. 한
국교통연구원이 공개한 자료를
보면 32만4822대로 추정된다. 이
는 전국의 다른 광역 시도와 비
교했을 때 그리 많은 건 아니다.
그런데 사망자의 수는 그계 아니
다. 경기도와 서울과 경북에 이
어 네 번째로 많다. 전북도와 도
경은 사망자가 많은 것에 대해
면밀한 조사를 하고 대책을 세워
야 한다.
현재 전북 지역에서도 자전거
등록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
부 나오고 있다. 자전거 등록제는
1999년에 제주도에서 처음 실시한
이래 전국의 지자체 12곳에서 실
시하고 있다. 그런데 우리 전북
지역은 14개 시군 어디에서도 실
시하지 않고 있다. 자전거 교통사
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
고 있는데 이제 긍정적으로 검토
해볼 일이다. 사고를 내고 뺑소니
를 치는 이도 아주 없지는 않을
테니 말이다.

전북도, 해양시대 열어야 한다

전북도에겐 신 해양시대를 열어
야한다는 주문이 떨어지지도 오
래됐다. 전북도는 신 해양시대를
열어야 한다는 도민들의 열망을
허투로 들어서는 안 된다. 지역
이 발전하려면 신 해양시대를 열
뿐만 아니라 선도해 나가겠다는
야망이 필요하다. 그런데 전북도
는 별로 욕심이 없는 것 같다. 지
역 발전을 고대하는 도민들의 눈
높이에서 보면 많이 아쉬운 일이
다.
전북도는 잘 판단해야 한다. 지
역 발전을 위해서는 신 해양시대
를 선도해야 한다. 지역을 발전
시키려면 그게 필수적이다. 한중
FTA가 완전 체결될지도 이제 꽤
중국하고 교류가 더 빈번할 터이
다. 그런데 전북도는 그에 대해
서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
직까지 구체적인 전략을 보여주
지 않고 있다. 저번에도 지적한
바 있지만 아무래도 전남과 충남
의 행보에서 한 수 배워야 할 것
같다.

신 해양시대를 여는 것과 관련
해 도민들의 의사는 분명하다. 새
만큼 관광권역에 대해서 군산시
와 김제시와 부안군이 갈등을 빚
은 지 오래됐지만 여태 조정 안
되고 있음은 답답한 일이다. 전남
과 충남의 행보를 보아야 한다.
전남의 경우 전북 행정지도에 표
시된 해상 경계를 넘어 연안구역
을 설정했는데 해양수산부로부터
승인을 얻은 지 꽤 되었다. 충남
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자치단
체인 등거리 중간선으로 해양 관
할구역 설정하는 법률안을 발
의했었는데 그 또한 그 쪽에 유리
한 어떤 성과가 있었을 터이다.
전북도는 지역발전에 무한 책임
을 져야 한다. 그러려면 우리 지
역의 것을 다른 지역이 넘보지 못
하도록 해야 한다. 그리고 다른
지자체보다 앞서 나가려면 먼저
발언하는 적극성을 보여야 한다.
후발주자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
된다. 신해양시대를 열어야 한다
는 도민의 뜻에 부응하려면 이제
달라져야 한다.

전주매일 전자신문 www.jjmaeil.com

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

"더 좋은 신문, 더 사랑 받는 신문,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"을 위해
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
'전북 최고의 신문'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

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
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
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.

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
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
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
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.

인간중심 · 도덕중심 · 지역중심 **전주매일**